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권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2000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계획

### 2월 16일(수)부터 3월 1일까지 각 부서별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위한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가 내달 일제히 개막된다.

대학부가 2월 16일(수)부터 2박 3일 간 양수리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는 21일(월)

부터 각각 2일간의 성경학교를 개최하며 사랑부는 25일(금)에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중등부 24일(목) - 25일(금), 고등부 21일(월) - 22일(화) 양일간, 청년부 28일(월) - 3월 1일(수)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각각 개최한다.

교회학교들은 계절학교 개최에 앞서 생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게 된다. 각 부서들은 이번 계절학교 기간을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교회의 올해 포어인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주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부서	실시일	장소	주제	강사
유치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종윤 목사, 최지혜 전도사
유년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종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초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중등부	2월 24일(목) - 25일(금)	교회당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종윤 목사, 용석범 목사
고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대학부	2월 16일(수) - 18일(금)	양수리수양관	젊은이여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종윤 목사, 정윤돈 목사
청년부	2월 28일(월) - 3월 1일(수)	동신기도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이종윤 목사, 고경선 목사
사랑부	2월 25일(금)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겨울성경학교▶

## 성경통독사경회 2월 4 - 5일 계획

설 연휴 기간에 신앙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통독사경회가 개최된다. 성경통독사경회는 2월 4일(금)과 5일(토) 이틀간 열린다. 시간표는 제 1교시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 3교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둘째날인 5일엔 1교시까지만 진행된다.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식사 및 휴식 시간이다.

장소는 서울교회 3층 예배실이며 강사는 본 교회 목사와 전도사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여기엔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 ■ 어떻게 진행되나?

사경회는 강사들이 강단에 올라 성경을 낭독하면 참가자들은 강사들의 인도에 따라 눈으로 글자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하면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은 주황색으로, 약속의 말씀은 빨강색으로,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에는 파랑색으로 밑줄을 치는 것 등이다.

각 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면 강사와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고, 끝부분에 “아멘”이라고 외친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친다.

낭독시간에는 일체의 잡담을 금하고 성경 읽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또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맥)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읽는다.

### ■ 다락방과 금요기도회는 쉽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과 금요기도회는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

자칫 흐뜨러지기 쉬운 연휴 기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신앙을 증진시키는 은혜로운 기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사경회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새 예배당 건축 소식

▶ 파이프오르간 설치 = 새 예배당에 독일 Karl Schuke - Berliner회사가 설계 제작할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다. 26일(수) 당회는 슈커 회사와 57stops (3Manual) 오르간 계약을 허락하고 추진기로 했다. 주문 제작되는 이 오르간은 주문일로부터 36개월이 걸리며 세계적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슈커회사는 세종문화회관, 이화여대, 계명대, 분당가톨릭 성당 등에 이미 오르간을 건축한 바 있다.

▶ 시멘트 타설공사 =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31일(월) 지하 뚜껑을 덮는 시멘트 타설공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구정 연휴 전 타설공사를 하고 연휴 기간 동안 양생을 시킬 계획이다. 지상으로 올릴 벽돌 선정과 내부 설계를 점검하고 전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건축위원회는 은교회가 하나님께서 일기를 고르게 해 주실 것과 현장 일꾼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마음을 주실 것 그리고 자금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다.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5일(토)은 설날이다.

설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중과세의 지적이 있는 만큼

소박하고 의미있게 이 시간을 지나도록 하자.

아울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천년 전 가버나움이란 동네 베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모셔야 할까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며, 산상에서 큰 교훈을 주셨던 분이며,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으며, 베드로의 집에서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가 주님을 모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1.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죄인이고 보잘것 없는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넬료는 피지배국의 어부 출신 베드로를 초청하고는 베드로의 방문을 황송하게 생각하며 엎드려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듯이,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가셨듯이 우리 집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처럼 누추한 곳에도 임하셨던 분이시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고 하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을

##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도	다함께
성시	시편 148편 12 - 13절 인도자
찬송	460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마가복음 2장 1 - 12절 인도자
설교	"우리 집에 계신 그리스도" 인도자
찬송	305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주님과 대화 속에

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선언 속에는 치유의 축복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간 것은 사람이었지만 병을 낫게 한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인간을 동역자로 쓰시고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심으로 용서의 가정, 새 희망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메시지

# 우리 집에 계신 그리스도

## 마가복음 2장 1 - 12절

모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2. 우리 집에 오신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집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뜨겁게, 쉬임없이, 간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

서 지혜를 얻어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겸손하게 되고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오신 주님을 인해 영적 대화가 시작되었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3. 우리 집에 오신 주님을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웅성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모인 무리들 중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고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상에 매어 달아 내린 네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산다는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주님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1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초청된 새가족 \*

- 김구슬 김승원 강성은 김기범
- 홍은표 김수정 정수환 임석찬
- 박유선 권영하 최옥녀 이다현
- 김미숙 문성기 박영강 류영신
- 조신자 정근채 김규차 이근대
- 김희연 조대현 권태희 배정자
- 최진순 김홍경 이철우 홍의숙
- 신선희 함신녀 이혜정 송남석
- 유동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1월 테마전도주일을 보내고

# 친구를 위한 5400번의 기도

이혜란(집사, 3교구)

테마전도주일 몇 주일 앞두고 그동안 15년간 기도해온 친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하루에 한번씩만 했더라도 5400번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기도한 셈이다.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또 환속으로 기도한 친구였다. 교회의 '교' 자만 들어도 머리를 흔들던 친구다. 며칠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령님을 앞장세우고 미리 정성껏 준비한 성경책과 과일을 사가지고 친구집을 방문했다.

교회적으로 드린 테마전도 기도의 위력이 우리 친구의 마음을 열어놓았는지 조심스레 꺼낸 말에 아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 너무 감사했다. 약속을 받아 내곤 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기쁨과 선행으로 가득차다.

드디어 주일날 나타난 친구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나 또한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말로는 다할 수 없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더니 정말 천하를 얻은 기쁨뿐이었다. 한번도 드리지 못한 예배를 2부 드리고 점심 식사 후 3부도 드리고 예배 후 우리 교회의 이모저모를 다 이야기한 후 헤어졌다.

친구를 위해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천하보다 귀한 선물을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린다. 주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생명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고 오늘도 친구를 위해 쉽없이 기도드린다.

# 꼭 한 번만 기도하고 하기에...

김세재(집사, 새가족부 교사)

새가족부에서도 테마전도주일을 소개하고 몇 주 전부터 친구를 데려올 것을 권유했다. 두 주 전, 집회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에 한 새가족이 내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새가족에게 있어 제일 가까운 친구는 남편인데 교회에서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교회가잔 말을 꺼낼 수 없으니 내게 전화라도 한번 해 달라는 내용이였다.

그 새가족은 결혼 전에는 교회 봉사도 잘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 후 전혀 교회를 나갈 처지가 못돼 안타까운 가운데서 자신의 세 자녀는 남편 몰래 교회에 다니게 했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던 분이다.

주간에 나는 틈이 나는 대로 그 가정을 위

해 기도하다가 지난 주 금요일 오후 쪽지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입니다."

"예? 서울교회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실은 사모님께서 선생님을 꼭 저희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선생님을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모레 일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꼭 뵙고 싶군요."

"... 몇시에 합니까?"

"예, 오전 9시와 11시에 시작합니다."

"빨리 끝납니까?"

"예, 한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9시와 11시라 그러셨죠? 시간 봐서 가겠습니다."

주일이 되었다. 1부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 2부 예배 후에도 밖에서 기다렸으나 보이질 않았다. 새로 오신 분을 모시고 당회실에 들어갔더니 방안에 그 새가족이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함께 서서 싱글벙글하고 계시질 않는가!

대부분 새가족이 일벌결에 하시는 말씀들, "제 친구가 오늘 꼭 하루만 와 주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못 보면 영원히 안본다는 친구의 협박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의 환한 얼굴, 그리 싫지 않은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게 쪽지를 건네준 새가족의 기쁜 모습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볼 수 있었다.

## 오늘 기도 일

해마다 명절이 오면 희비가 엇갈린다. 새뱃돈 벌어들이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 돈으로 멋진 여행 계획까지 짜놓지만 서민층 어른들은 걱정만 쌓인다. 고향으로 갔다와야 하는 지옥같은 교통길도 문제지만 그 많은 노력에 비해 남는 것은 허탈과 고생뿐이기 때문이다.

명절이 오면 기쁨과 감사와 화목이 굳어져야 하고 동과 서가 하나로 이어지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것이 없다. 더구나 불행한 것은 신자 가족, 불신자 가족 사이가 하나도 가까워진 것이 없고 오히려 반목과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만 있다. 지금처럼 믿는 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의 고민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을 무시하거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불신 친척들하고는 상종을 거부할 수도 없으니 이또한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도리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보면서 가히 혁명적인 행동을 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게 된다.

### 고민되는 명절이 변하여

김광신(장로, 12교구)

무엇보다 명절이 명절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기도와 준비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어두운 반응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장과 경건함이 요청된다. 장남이나 큰집에서 명절을 지키던 규례를 깨면서 막내인 자기 집에서 감당하겠다고 선수를 쳐 점수를 따는 것도 방법이고 일체의 명절비용을 몽땅 책임

지면서까지 예수의 냄새를 드러내는 것도 좋으리라.

예쁜 초청장을 손수 가족 식구들이 만들어 보내면서 이번 명절을 우리 가정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겠다고 하면 안될까. 왕복교통비도 미리 보내드리고 모였을 때의 프로그램도 자세히 적어 넣으면 어떨까.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는 내용을 보여주어서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면 어떨겠는가.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이 사는 불신 친척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가족 회의를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명절이 되도록 밤을 새면서까지 의논하여 최선의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어찌하든지 불신 친척을 불쌍히 여기는 명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명절이 되게 함으로 고민되는 명절이 변하여 기다려지는 명절로 바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무명	김복순	송금자	송두섭
무명	남영섭	박분옥	고기성 고기태 서정복
유병옥	상남용 오영자 성수현		고대옥 김경순 고병갑
	성현정	이동만	이영하 오봉인
박철권	안태영 송원숙 문주현	왕경희	박기양 박영신 박유신
이경희	오희영 김은경	최일춘	이준영
박두호	김병용 이언옥 최재영	김은희	차은정
	백상재 차원철	김미향	김광길 김수인
최요섭	김군도 주창완	최지혜	박지수
김경옥	김상남	무명	성유정
김종자	박경옥 이말숙 박준형	황해자	성순자
전인화	강중학 전창권	강신혜	김재희
신순우	조해금 염대규	노대희	주향자 노경희
전기섭	전강민 장영화	왕원희	김성정 박현선 최문희
원영애	김필립	이영희	문옥일
전배호	정인수 정문서 결보란	김재술	신경숙 마호영 홍성원
	정보성	김영란	전호근 최승호 김민석
김명숙	이영미 이승자 이병일	김성대	조경숙 김화정
최근자	나진균 나도길 최명호	김현재	김광석
황보추자	정연래 엄윤주 엄선영	김세철	김희순 이병권
	엄철현	최병운	최병운
전용순	전용환 최형식 이선희	이용선	신종남 김순희 선용원
박진아	김건우	신정원	신정원
조형준	박태연 박종현 김 응	하상용	김명숙
	이형훈 이형석	이재봉	이재필 이지원
김지민	김소연	이정자	구설환 전용일 권오숙
안규현	장기범 이형록	이인숙	이인숙
이소희	이정은	노분환	장일득
진준식	장의석	박정섭	김영자
김성국	정유석 여 혁 박병주	조철기	김영원 김영순
	박세현 김현준	정호진	신석균 정경순 신현호
김현숙	정말순 김하기 박은희	신현화	신현화
윤봉준	임동진 최길순	김선화	한상학 박춘원 박해일
박병수	박복덕 박선덕 박복자	최동규	최동규
	박복입	탁경준	이재근 서경석 전무광
나상민	성선녀	김필립	김필립
김영주	김덕주 김소영	심재을	안 평 허규택 심재수
나미용	박상준 윤여정	정원숙	정원숙
이학주	김재건	왕경래	박승민 오덕영 이규완
이신정	손희정	윤용진	김기석
정현숙	고수현 송복선 홍성원	최죽희	이하영 최철준 동생처
	김영숙	원복순	이권호 김경애 이수혁
조정옥	조은혜 조명숙 장동숙	이수현	이진혁 신유철
	조길행	최희옥	신동지 신동민
송금자	송상철 박문숙 송준섭	김선미	김호진 김광수 황민숙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김선미	김해미 김혜원 김태원	김경운	채영이
오충례	오희교 김보금 진종순	김계순	안무영 안재화 안제민
	전수완 이상순	이부자	박규원
최홍렬	최귀녀 최경열 이화자	강희자	강원희 강경규
	최심순 정판식	함송현	김천수
송영강	김정임 홍보희	조상희	최송희 조민정 조민성
이민화	안영국 우정자 마정숙	최종시	최규원
박진희	임상옥	이경희	김순옥
진경희	정숙희	홍성주	서신석
한준호	한해경 백옥분 고영애	김숙자	이운성
	최규영	김숙자	이운성
김정운	김은희 김영희 송정식	위성남	홍기명 최영숙 김민숙

\*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403호실에서 개최됩니다.  
 \* 2000년도 태신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작성하신 태신자 카드는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1월 23일 현재(다음호에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80	낙원교회	석홍(목)	이동만 · 이은자
81	덕호교회	고재복(목)	이강인 · 허숙
82	백마교회	김우동(전)	모세선교회
83	사봉로교회	김태완(목)	안드레선교회
84	송현교회	정용식(목)	안드레선교회
85	신암교회	오진근(목)	장명순
86	신산교회	심규백(목)	김선일
87	대한성결교회	김희동(목)	김복녀
88	백도교회	이기성(목)	이임희 · 백영희
89	봉기교회	김학경(전)	이성근 · 김영립
90	사목벤엘교회	김순덕(전)	탁경준 · 전정순
91	성광교회	강내봉(목)	김상철 · 최원자
92	청수교회	조원철(목)	최종시 외 2

■ 이종윤 목사 방송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동정

\* 이종윤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한국 교회 발전과 위상을 높인 데 대해 27일(목) 공로패를 받았다. 이 목사는 정직 · 절제 · 사랑실천운동 전개, 청소년 순결서약운동 전개(100만 명 돌파), 기독교교도소셜리즘 추진(법제화), 목사복 제작 연구와 확산, 탈북난민 UN청원서명운동 등을 제안 · 추진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이 목사는 31일(월) 연복회와 고목회 연석 임원회 그리고 탈북난민 UN청원운동추진위원회를 인도한다.

\* 김선일 집사(임마누엘찬양대 지휘)는 2월 3일 - 6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주최하는 오페라에 출연한다.

\* 신순우 집사(4교구, 소망부 부감)는 27일(목) 산림청장으로 발령받았다.

\* 니갑렬 · 임희분 집사(2교구)는 "도노반"을 확장 개업했다(☎ 778 - 9607).

\* 홍석현 성도(11교구, 조정옥 집사 아들)는 30일 입대한다.

\* 오늘 식사는 최난수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도르가전도회는 31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건축인부들에게 간식을!

매일 오후 3시 경이 되면 건축 현장의 일꾼들이 간식을 들며 새벽부터 해오던 노역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에 이름없이 간식을 준비하여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다락방별 또는 전도회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남OCU 집회 우리 교회당서

강남OCU(기독교장교회)는 성경공부 및 기도회를 우리 교회 310호실에서 갖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새벽 6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국가안녕과 군복음화를 위해 모여 기도와 말씀공부를 하는 퇴역장교들의 모임인 강남OCU는 그동안 햇불선교센터에서 집회를 가졌으나 사정상 장소를 우리 교회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은 이종윤 목사가 1995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를 위해
2. 성경통독사경회를 위해
3.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